

대화주의 이론 제창한 바흐친의 생애와 학문

「바흐친—미하일 바흐친 전기」

미하일 미하일로비치 바흐친. 그는 러시아에서 태어나 지금은 붕괴돼 버린 소비에트 연방에서 80평생을 대화주의 원리탐구에 바쳤던 학자다.

서유럽의 고전문학, 독일철학에 정통하고 문예학·미학·예술학에서 남다른 경지를 보이고 심리학·언어철학에까지 학문의 영역을 넓혔던 그는, 학자로서 당대의 회귀한 평가를 받아왔는데 러시아이기에 출현가능했다는 그의 글에는 러시아혁명, 스탈린 시대, 그후의 세월이 녹아 있다. 그래서 그는 기호학자로, 마르크스주의자로, 구조주의나 후기구조주의자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책은 대화주의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일련의 연구성과물을 남긴 그에 대한 K. 클라크와 M. 홀퀴스트의 전기이다. 이 전기는 한 위대한 학자의 일생을 생의 전개를 펼쳐놓는 가족사적 전개가 아니라 각 시대마다 고난 속에서도 열정을 바쳐 이룩해낸 학문적 진전과 그 생애적 연관을 중심으로 엮어졌다.

바흐친에게 있어 도스토예프스키와 라블레는 바흐친의 사상을 결정적으로 형성시켜준 작가들로서 이질언어성을 다성주의 소설론으로 확립시켜 대화주의를 제기하고, 카니발의 민중언어와 장편소설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전기에는 바흐친과 도스토예프스키의 관계가 비중이 크다. 그들이 생애와 작품에서 분신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같이 정치범으로 체포됐고, 바흐친이 솔로브키에서 받은 사형선고가 카자흐스탄 유형으로 바뀐 것처럼, 도스토예프스키 또한 세예노프스키 광장의 단두대에서 사라질 뻔 하다가 시베리아로 유형을 간다.

바흐친은 「도스토예프스키 시학의 문제점들」을 통해 어린 시절 여러 언어를 가진 고향의 이질언어성과 청년시절 친구들과의 서클적 교류에서 찾아낸 헤겔의 이성개념과 변증법을 철학적 독백주의라고 비판했던 관점을, 많은 목소리들, 많은 관점을 갖는다는 '다성적인 소설' 개념을 등장시켰고 대화주의 연구를 붙들고 늘어난다.

이처럼 바흐친은 도스토예프스키를 통해 권력의 희생물이었고 죽을 때까지 만성적인 관절염으로 고생했던 자신을 극복해낸 것이다. '변증법은 대화에서 나온다'라는 바흐친의 대화주의는 러시아의 문학전통을 도스토예프스키 연구 속에서 찾아낸 경우로 비평가의 작가

라는 평범한 관계를 뛰어넘는 것과 동시에 비밀스럽게 일체가 된 경우의 특이한 예이다.

그의 대화주의는 국가와 같은 하나의 조직, 이상, 텍스트 등의 절대진리인 독백주의를 벗어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으로 '카니발' 개념과 함께 스탈린 시대의 문화와 대숙청 등 독재체제를 매우 폭넓게 비판하고 있다.

한편 서사적 양식의 붕괴와 서사적 양식의 이론적인 반성이란 틀 안에서 루카치 소설로의 약점을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는 카니발의 민중언어와 장편소설의 문제는 청년시절 친구들과의 서클적 교류가 라블레 연구를 통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의 카니발 문화개념은 문학의 카니발화, 카니발의 문학화에 대한 것으로 카니발은 '자유와 본질적으로 헤어질 수 없는 웃음'을 갖고 있지만, 권력·공포·억압은 한번도 웃음의 언어로 말해진 적이 없음을 꼬집는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른 생각 하나가 있다. 다름 아닌 대화주의에서의 독백주의의 비판과 카니발에서의 웃음의 언어가, 평론가 임우기씨가 쓴 4.19세대 문학의 비판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바흐친이 근대의 독백주의 원리가 서유럽의 합리주의와 계몽주의 전통에서 나온 것임을 간파해 내고 러시아에서는 공동체적 현실을 더 중시하는 전통이 있음을 도스토예프스키에게서 찾아낸 것처럼, 그 평론가 또한 '저 탄탄한 합리주의의 벽'을 4.19세대 작가·비평가로부터 느끼며 교감의 문법을 주장했을 때 '합리주의적 문명'에 대한 비판과 항거 그리고 '문명적' 억압과 구속에 대한 해방의 희원은 바로 대화주의와 카니발의 개념속에서 찾아낸 것은 아닌지.

박명기

서울 구로구 시흥본동 879-71

「시인의 사랑」

낙엽이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 가을에, 어떤 한 권의 책을, 제목이 하도 아름다워 집어들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책에 대한 찬사라기 보다는 평화로 들릴 것이다. 또한 그것을 선택한 이의 낭만적 치기를 드러내는 고백에 지나지 않으리라. 그러나 제목의 아래에 넓게 자리잡고 있는 그 책의 풍요한 육체에 대한 믿음과 끌림이 더욱 크게 작용했으며, 작가에 대한 거의 본능적인 관심이 놓

여있음도 말하고 싶다.

한 편의 지나간 시와 같은 이 시적 소설을, 아니 소설적 시라고 말하고 싶은 최승호씨의 첫 장편소설 「시인의 사랑」(민음사, 1993)을 집어들면서 나는 행복했었다. 그가 시에서 보여준 견고하고 서늘한 언어들을 소설을 통해 만나는 느낌은 당연히 행복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어가면서 나는 차츰 당황하기 시작했다. 줄거리는 '시인의 사랑'이 아닌 '시인의 이별'에 대한 것이었으며,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인의 사랑과 이별에 대한 사유의 기록'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아내 여옥(麗屋)의 끔찍한 죽음에서 받은 충격은 주인공인 잠자(蠶子)—성충이 되어 날아오르려는 투명한 꿈을 간직하고 있는,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고뇌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자신에 대한 상징적 명명이라고 생각되는—를 더 이상 현실에 서있지 못하게 한다. 휴식과 망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새로운 비상을 찾아 다른 곳으로 도피하도록 거칠게 떠민다. 그는 화합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해 산골에서 벌을 키우며 살고 있는 외할머니의 집으로 들어간다. 그는 끔찍한 세상을 잊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끔찍한 세상은 그에게 집요하게 달라붙는다. 거기엔 산골의 여러 미물들이 있었으며 결국에는 여옥이 있었다. 그러한 집근은 처음에는 몹시리처지는 악몽이었으나 그는 그 악몽을 지혜와 성찰과 사랑의 눈으로 해몽해 간다. 그는 고통을 피해 세상을 등졌으나 그에 대한 세상의 구애가, —아니 세상에 대한 그의 사랑이 너무도 뜨거움을 알고 다시 세상을 향해, 아직은 누에인 상태로 돌아온다. 바로 그때, 돌아옴의 그 시점에서, 네시오분이라는 절대적 시간과 충격적으로 만난다. 항상 존재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그 절대적 시간. 그것은 그에게서 뻗어나가 세상과 친지를 꿰뚫으며 그와 세상을, 이별과 사랑을, 그리고 떠남과 만남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는 이제, 누에에서 성충으로, 다시 투명한 새가 되어 그 끔찍한, 아니 너무도 사랑스러운 세상을 향해 날아간다.

그의 긴 사유의 여정을 따라 가면서, 나는 조금 지치기도 했으나, 그의 조용하고 도저한 이별과 사랑의 고백에 감동했다. 독백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소설적 시는, 문체의 다양한 변주를 통해 값싼 사랑이 판치는 이 세상에 조용히 도전한다. 투명한 새의 도전, 그것은 아름다운 방향과 깨달음의 열매이다.

그의 투명한 새는, 어느 아름다운 한 시인의

황금빛 새와 닮아 있다. 투명한 새의 돌아옴은, 황금빛 새의 현란한 비상과는 궤적을 달지하겠지만 그들은 결국 한 곳에서 만나리라. 그토록 떠나려 했고 떠나고 싶었던 그곳, 바로 이 세상에서.

김 범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755 백마마을 삼성아파트 107동 1501호

「그 섬에 가고 싶다」

임철우의 소설 「그 섬에 가고 싶다」는 아름다운 별이야기다. 어린시절 할머니가 손자에게 들려주었던 별이야기로 지어진 소설이다.

할머니가 들려준 얘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별이라는 것, 신분과 부귀 등의 차이를 갖고 태어나긴 하지만 사람은 알고보면 모두 똑같이 소중한 귀한 별이라는 것, 본시 떠나 없이 모두가 한때는 별이었고 잠시 내려왔다, 다시 하늘로 돌아가게 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잊은 채 '그저 서로 아등바등 뜯고 싸우기만 하면서, 평생동안 악착같이 허덕이고 살기만 하다가 끝내는 가련하게 죽어' 가는 존재라는 것.

반임이 누나의 죽음소식을 들으며 먹지같은 하늘에서 이제 막 새로 태어난 낯선 별하나를 찾으려고 했던 아이는 이제 커버렸고, 아파트 숲속에서 자신의 딸과 함께 할머니한테 들었던 별이야기와 그 유년의 섬과 바다, 그리고 그리운 얼굴과 이름들을 하늘 위에서 찾아보는 것이다.

이 소설은 어린시절이 만들어 놓은 동화공간 속에 떠있다. 사실성 여부를 초월한 동심의 신비스런 호기심과 추억의 무늬들이 아름답게 짜여져 있고, 고향마을, 낯익은 사람들과 풍물들, 그 속에서 펼쳐지는 사건과 풍물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며 환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무릇 예술가의 창조력의 원천 중에는 유년시절의 추억과 향수가 그 으뜸일 텐데 그 공간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환상적이며 항상 정지된 영감으로 남기 때문일 것이다.

머리속에 수백마리의 이를 수십년 키우고 있는 옥님이 이모, 바람난 남편 때문에 미쳐 버린 넓도댁이 도깨비 타고 다녀왔다는 사흘간의 제주도 여행, 발가락이 커져 큰 돼지로 변한 할머니의 태몽, 그 섬을 통틀어 가장 많

은 남편의 매를 맞아 신이 내려 무당이 되는 업순네, 문둥이 딸을 공동묘지의 이장한 무덤 바닥에 버리고 와야 했던 젊은 부부, 곱사이며 '낙타등'이라는 별명을 가진 반입이 누나의 죽음, 절뚝발이 사촌형과 술집색시 금옥이와의 사랑, 바람피우는 별떡녀의 풍문...

이것은 모두가 별이야기들이다. 유년시절의 추억 속에 한 장의 빛바랜 사진으로 남아 있는 얼굴 얼굴들. 그들을 통해 사랑의 의미와 슬픔과 기쁨, 고통과 삶의 따뜻한 온기 등을 배웠고, 세상 속에서 지친 영혼으로 머물지만 추억 속에서는 맘껏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삶과 죽음의 문제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님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 현실과 꿈, 관념과 실체를 환상적으로 뒤섞어 놓을 수 있는 작가를 하나 만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그와 함께 떠나는 그 섬으로의 유년여행이 순수함과 별이야기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별이듯 모든 추억도 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강정숙

인천시 북구 산곡동 현대 APT 306동 1406호

「미의 순례」

금년 여름은 한국미술에 대한 관심으로 특히 여행하며 느낀 것에 대한 에세이식 책들이 여러권 유행처럼 출판되었다.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시발로 강우방의 「미의 순례」 광재구의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세상」 이형권의 「문화 유산을 찾아서」 등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체험의 미술사를 표방한 강우방은, 최근 한국미술을 이끄는 50인에 선정된 것이 증명하듯이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는 미술사가이자 국립박물관 학예연구실장으로 「원유과 조화」 「한국불교의 사리장엄」 등의 저서가 있다. 이 책은 단편적인 글로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 일상생활 속에서 학문으로서의 미술사학과 창조적 예술행위가 어떻게 융합되어 형성돼 왔는가”하는 과정을 나름의 문학적 문체를 빌어 내보인다. 그의 말처럼 다른 어떤 분야보다 체험을 필요로 하는 미술사학에 대한 그의 사랑은 우리에게 또다른 현장체험을 요구하고 있다.

그가 느낀 체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황룡사의 초석을 보러 갔다. 그가 닿은 높이에 닿지는 못했으나, 황룡사가 신라의 중심뿐 아니라 세계의 중심이라는 주장에 동감할 수 있었다. 바위들이 그토록 깊이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경험이었다. 오늘날 우리들이 형성하지 못한 시대정신의 상실이 더욱 문제인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상실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론의 정립이 부족한 민족이라 할 수 있다.

이 땅을 거처간 '차 마시기'가 바다 건너가서는 '다도'로 정립돼 세계인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그 한 예라 할 수 있겠다. 최순우 국립박물관장 이후 한국 미술의 자긍심을 심어 줄 미술이론작가 한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한국미술의 정립을 보여줄지 매우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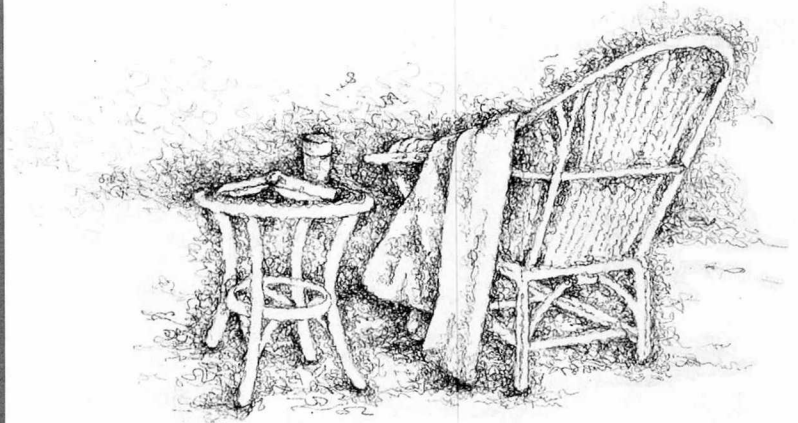
그러나 각각의 개성이 뚜렷한 글과 전문성이 강한 논문 형식의 글이 함께 수록되어 통일감이 부족한 점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의 주장대로 미술사 연구가 생활화 되어야 함은 사실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수준을 향상시킬 만한 한국 미술의 돌다리에는 아직 알맞게 놓이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 미술의 역사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심층적인 미술사적 국민교육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가 가리키는 달을 보기보다는 그의 손가락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이 있음을 인지하고, 어렵지만 이런 노력이 계속되어 안목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한명철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79-5 괴산축협



따뜻한 불빛이 그리워지는 도시의 저녁

해가 뜨면 일하러 나가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밥상머리에 둘러앉은 식구들의 정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아버지는 늦으십니다.
놀이방에 아이를 맞긴 어머니의 마음에 폭풍이 입니다.

빌딩 숲 사이로 어둠이 내린지 이미 오래
우리로 하여금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신없이 사는 게 아닌
열심히, 사랑하며 사는 세상
한술이 추구하는 영원한 주제입니다.

한술 기획

한술에서 하는 일

출판기획 · 출판제작대행 · 사사제작 · 광고기획 · 전자조판 · 디자인 등

원고 은행

귀뚜라미 울음소리와 함께 가을이 깊어갑니다.
원고지 칸을 메우는 당신의 눈빛도 더욱 머물어가고 있습니다.
출판의 기회를 만드십시오. 에이전시 한술은 언제나 당신의 옥고(玉稿)를 기다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706호(세종문화회관 뒤) 대표전화 : 735-4997 팩스 : 722-3866